

“국어사전 佛紀서술 잘못됐다”

호원대 오종근교수 ‘불교의 기원은 석가모니 입멸한 해’ 자료첨부 정정요청 수정출판 약속 받아내

한 불자의 노력이 우리나라 모든 국어사전의 불기(佛紀)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바로잡았다. 오종근 보리방송모니터회 전북지부장(47·호원대학교·사진)이 그 주인공.

일은 아주 사소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해 10월말, 한 일간지 기사, ‘석가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불기(佛紀)로 서기 2000년은 2565년 이 된다’는 것이었다. ‘2544년이 되는데 2565년이라니?’ 바로 신문사에 전화를 했다. “국어사전을 참고했는데, 틀렸더니 이해가 안된

다”는 담당기자의 답변이 그를 놀라게 했다.

즉시 국어사전을 찾아냈다. 사전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물음에 부딪혔을 때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제1로 삼아야 한다.

유명출판사에서 펴낸 6개의 국어사전 모두 한결같이 ‘1000년 1기로 셀 불타의 연기(年紀)라고 영통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국어사전의 텍스트가 되어야 할 불교사전에는 아예 항목조차 없었다. 올바른 불기의 서술을 찾기 위해 서울 대형서점을 십여차례 오갔다. 사전을 구입할 형편이 못돼 서점 한편에 주저앉아 베껴냈다.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94년판) 만이 바르게 서술돼 있었다. “불교의 기원(紀元)으로부터 해아리는 불교의 해수, 불교의 기원은 석가모니가 타계한 연도...한국불교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의 결의에 따라 이 불기(1956년이 불멸 2500년)를 따르고 있다...”



오교수는 한글학회와 금성, 삼성 등 국어사전을 펴낸 출판사에 자료를 첨부해 “불기→불멸기원, 석가모니가 입멸한 해를 기원으로 하는 연기(年紀), B.C. 544년부터 시작함”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모든 사전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출판되는 국어사전에 수정하여 출판하겠습니다.” 석달간 걸친 ‘바로잡기’가 결실을 맺었다.

“30여년 전부터 세계공통의 불기를 세웠는데 이제껏 틀린 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니 보람을 느낍니다.” 작지만 큰일을 해낸 오교수는 “잘못 알려진 불교를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며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불교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명이 무문(無門)인 오교수는 전북불교회관 자원봉사팀장, 화엄불교대학 비상근 기획처장, 우리는 선우 전주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제4회 현대불교신문 신 행수기 시상식

제4회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시상식이 1월26일 한마을사랑방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국성스님, 종단협의회 사무차장 자일스님, 불교진흥원 최명순 사무국장 등 시상단체 대표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을 비롯 수상자 7명, 신수회, 심우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 & 뉴스

평택에 경로의원 개원

연꽃마을(이 사장 각현)은 1일 평택 남부노인복지회관 경로의원과 경로식당 문을 열고, 65세 이상의 관내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서비스에 들어갔다. 연꽃마을은 남부경로의원에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물리치료실, X-RAY실, 심전도실 등을 갖추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 를 하고 있다. 또 경로식당에서 하루 13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연꽃마을은 평택 남부노인복지회관 외에도 지난해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인수, 운영하고 있다.

北 성도절 ‘출타행’ 요구

북한은 성도절을 맞아 한국 불자들에게 북한과 연대해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애국애족의 출타행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불교연맹 정성화 책임지도원은 1월 25일 평양방송에 출연, “올해 남북 불교인들에게 주어진 주요과제는 남조선의 자주화 실현과 민족대단결을 위해 의로운 활동들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우리(북한)와 연대해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애국애족의 출타행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도필선 기자

조계종 간병봉사자 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3일부터 4월2일까지 간병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생아 및 산모관리, 임의 중세와 관리,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환자다루기, 중풍·치매환자 관리, 환자의 발 마사지법, 환자와의 대화법, 연습법 등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02)723-5101

도필선 기자

무의탁노인 생일잔치

육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매일 무의탁노인을 위한 생일잔치를 연다.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달 생일을 맞은 무의탁노인을 초청, 매일 첫째주 금요일 오후 2시 복지관 식당에서 잔치를 벌인다. 생일잔치는 생일선물 전달식과 여흥으로 진행된다.

한편,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생일잔치에 먹거리와 선물, 성금 등을 지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82-1100

도필선 기자

구속자식방 단식농성 해제

12·23 법난규탄 및 구속자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농성단(대표 도겸)이 1월28일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중앙승가대학 학인 10여명이 참여한 농성단은 13일동안 12·23 조계종 사태 구속자식방대책위 사무실에서 단식을 해 왔으나 체력적 한계에 부딪혀 농성을 중단했다.

도필선 기자

조계종 전국신도회 재가동 준비

새 회장에 선진규씨 추대 중신회와 통합논의 나을듯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사실상 해체상태에 있던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새 회장을 뽑으며 재가동 준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조계종전국신도회는 1월 27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제24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18대 회장에 선진규법사(65·봉화산수련원장)를 추대했다. 전체 186명의 대의원 가운데 137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전국신도회는 7인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가 추천한 선법사를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했다. (새 회장 인터뷰 4면)

대의원총회에서는 또 299천여만민의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주요사업으로 △새로운 신도운동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도시 순회 영불정토 결사대법회 봉행 △시·도 신도회 재가동 및 특수단체 조직화 △불교교양대학 및 포교당 설치 등 추진키로 했다. 부회장 및 사무총장 등 임원 인선은 신임회장에 위임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또 △교단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불법 수호와 흥부에 주력 △정당한 수행인의 공경 등 6개항의 ‘새 불교운동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신도회가 새 회장을 뽑고 체제정비에 나섬으로써 다시 조계종단내에 중앙신도회(공통회장 직무대행 김한곤 총무원)와 함께 사실상 두 개의 신도회 체제가 형성됐다. 전국신도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중앙신도회는 “신도들의 분열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단 재편기를 맞아 신도회의 재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자연스럽게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년 전 월주 당시 총무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결성된 중앙신도회는 새 총무원장 체제가 들어서며 총무원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신도회도 출범 2년여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 현재도 회장 공백의 회장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신도회의 통합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신도회 신임 선진규회장은 “통합을 염두에 두겠으나, 우선은 내부 정리에 역점을 두겠다. 무리한 통합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신도회도 지도부 공백상태에서 새 회장 선출 이후에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 중앙신도회는 이날 말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조계사 발전방향’ 공청회

9일 범불교연대회의

조계종 분규사태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계사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범불교연대회의(공동대표 도법법등 원택 진허 박광서 임안숙 백남석)는 9일 오후 2시 조계사 제1문화교육회관에서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조계사 발전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계종교사단 임명현사무국장이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조계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조계사청년회의중앙회장이 ‘조계사 신행단체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통해 분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농성’ 동국대 교수회 간부 8명 징계위, 출두요청서 발부

동국대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 교수회와 학교 당국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교수회(회장 유덕기)가 ‘이사회 송석구 총장 재입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1월14일부터 다시 농성에 들어가자 학교측이 교수회 간부 8명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요청서를 발부해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측 관계자는 “교수회가 학교를 음해하는 선전물을 부착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jekim@buddhania.com)

아빠타 코스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달음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아빠타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 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코스(프로그램)이다.

3부로 나누어진 아빠타 코스-의 목표는 자신의 신념체계를 탐구하도록 안내하며 스스로 바꾸기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빠타 코스**는 자신의 개성의 속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아빠타 코스에서 당신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빠타 코스는 7일~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회수는 분에게는 무료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교동편: 지리철 양재역 5번출구-마을버스(구용사행) 심호산 하차

慧元 아빠타 센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예빌딩 2층
전화: (02)579-9379 FAX: (02)572-5514

관광사찰 외국인안내 불교영어 소식지 발간

국제포교사회 올 사업계획 확정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양장운)는 창립 2주년제인 올해 관광사찰 외국인 안내와 불교영어 소식지 발간 등 외국인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제포교사회는 1월 23일 경기도 산본 정해사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은 △외국인법회 지도법사 파견 △관광사찰 외국인 안내 △영어로불교에 이프 제작, 보급 △영문판 계간(한국불교) 발간 등이다.

외국인법회 지도법사 파견은 우선 내달불자회를 지원키로 했다. 국제포교사회는 또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론교육 이수 후 국제포교사회의 자체 실수과정을 거친 뒤 품수토목 조계종 포교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문화재관리국 공공근로사업 실시

문화재관리국은 서울 경기 일원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원 사적지 정비에 필요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2월부터 실시한다.

사적지 정비 공공근로 사업은 문화재관리국 13개 지구 관리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은 '99년 2월~5월, '99년 9월~12월

(psdo@buddhania.com)

적극 포교

중국 위안부초청 추진

중국어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국방문이 나눈의집 위안부 할머니들에 의해 추진된다. 나눈의집은 97년 10월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 5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중 문명금·자들이 할머니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나눈의집은 이들 두 할머니의 초청기금 마련을 위해 5월~7월 안국동 살마시오소에서 3일간의 사랑나누기 찾집행사를 연다. 혜진스님은 “두 할머니의 귀국을 추진하는데는 수속비, 체류비 등 약 1천2백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나눈의집 (0347)768-0064

도필선 기자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중국 위안부초청 추진

중국어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국방문이 나눈의집 위안부 할머니들에 의해 추진된다. 나눈의집은 97년 10월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 5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중 문명금·자들이 할머니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나눈의집은 이들 두 할머니의 초청기금 마련을 위해 5월~7월 안국동 살마시오소에서 3일간의 사랑나누기 찾집행사를 연다. 혜진스님은 “두 할머니의 귀국을 추진하는데는 수속비, 체류비 등 약 1천2백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나눈의집 (0347)768-0064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통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약액)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동통한 사람은 15개월만 복용하면 20kg 이상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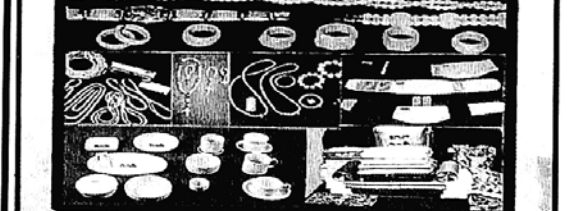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본사 생산제품 -
술선식 (2개월 50만원)
술호소정액 (2개월 50만원)
의수영신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의사인 고통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추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옥검이 처음 10분후 백은 손의 분광 파장이 회복하다
연속 사용전 1.5μV 연속사용후 3.0μV로 제내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오통, 스트레스, 허약, 노화방지...

너무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대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물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이차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뿌리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02)777-0105 (수원판매처)